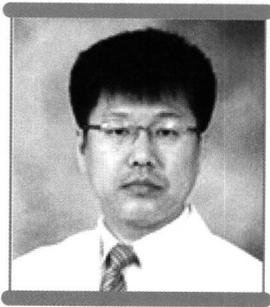


## 직업보건영역에서의 '정의'란?



단국대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  
노상철

얼마 전에 종영된 한 TV 드라마에서, 그 실존 여부의 의문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 왕들의 액을 받아주는 액받이 무녀의 역할과 활약을 그린 바가 있었다.

적어도 무녀의 대상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고 보면, 왕의 안위와 건강이야말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에, 한낱 무녀 신분으로서 왕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목숨까지도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으리라.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무녀 대신 다른 직업을 가진 이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야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또한 그 대가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실제로 이런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상사처럼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자신들도 그 소재거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관한 일은 아닐 것이다.

전년도 산재통계자료를 보면, 매일 6명이 작업 중 혹은 그와 관련되어 사망을 하며, 연간 2,100명이 넘는 현장의 근로자들이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

이 살고 있는 현 주소이다.

이러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을 원치는 않지만, 진정 근로자들의 액(厄)을 대신할 뭔가를 찾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이러한 수치의 의미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그것은 더욱 더 끔찍한 현실로 우리는 앞에 펼쳐지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비교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이라는 결과 앞에서는 망연자실해진다.

하지만, 매일의 일상사처럼 치부되기까지 하는 희생들은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이목을 특별히 집중시키지 못한다. 그것이 뉴스화 되기에는 너무 뉴스스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우리들 삶의 무게와 고통이 더 크다는 데 있다.

매일 42명이 스스로 개인적 절망의 결과로 자살을 하며, 임금 근로자 셋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며, 가계부채는 1,000조원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노동의 대가로 생명을 잃는 일은 이제 우리 사회의 관심거리가 되기에는 현재의 각박한 삶에 그 책임을 돌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최근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회자거리를 제공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에 대한 높은 관심은, 우리가 처해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한 현실적 돌파구로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그러한 정의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의 부도덕성과 불평등, 억압과 소외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자연 반사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미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정의'의 정치철학적인, 혹은 경제적인 의미 외에도 이 용어의 사용은 사회의 주요 문제점들에 대한 하나의 실천 이념으로서 자리매김해볼 수도 있는데, 그 한 예로 환경 분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정의'라는 용어의 등장이다.

지난 1980년 대 초반, 미국 내 유해 사업장 인근에 살고 있는 유색인들에게

서 불거진 문제점이 도화선이 되어서, 결국에는 1994년 당시 미국 대통령인 클린턴이 소외 및 저소득층에 대한 환경정의 관련 법안<sup>1)</sup>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 법안에는 야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연방기관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책 입안 및 실제 수행을 하게끔 명시되어 있다.

그 결과 환경 분야의 기관인 미국립환경건강과학원(NIEHS;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과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외에 직업성질환 관련 연구소인 직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이 공동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은 지금까지 54개의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sup>2)</sup> 각 기관별, 분야별 공동 협응 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훌륭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정의의 또 다른 의미로서, 사회적 평등을 언급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불평등한 상태 혹은 조건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급에 속한 집단일수록 사망률이나 질병이환율에 있어 불리함을 강조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직업보건영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아직 의미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의를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sup>3)</sup> 첫 부분은 과정적 정의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이며, 다른 하나는 관계적 공정성으로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서의 정당하고 신뢰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수용하는 측면에서의 그것이다.

---

1) Executive Order 12898.(Feb. 11. 1994)

2) Baron S, Sinclair R, Payne-Sturges D, Phelps J, Zenick H, Collman GW, O'Fallon LR. Partnerships for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justice: contributions to research, capacity and public health. Am J Public Health 2009;99(11) Suppl 3:S517-25.

3) Gimeno D, Tabák AG, Ferrie JE, Shipley MJ, De Vogli R, Elovainio M, Vahtera J, Marmot MG, Kivimäki M. Justice at work and metabolic syndrome: the Whitehall II study. Occup Environ Med. 2010;67(4):256-62.

이러한 특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 중에서, 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Whitehall 연구가 밝혀낸 결과에는 직장 내 공정(fairness)하지 못한 상황이 구성원들의 존엄성이나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육체와 정신적 기능에도 악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더 높은 심혈관 질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sup>4)</sup>

결국, 사회의 공정성이나 정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며, 실제 우리의 삶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직장 내에서 그것의 영향과 흔적을 발견함으로써 직업보건영역의 심대한 문제점들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업보건 영역에서의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 구성원들의 참여가 자유롭게 보장되고 주위 관련 전문가들의 효율적인 지원과 법적, 제도적 시스템 구비 그리고 일반인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이 보장된다면,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직업보건정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국제노동기구(ILO) 본관 건물 초석에 새겨져있는, 초대 사무총장 ‘알버트 토마’ (Albert Thomas ; 1878-1932)의 생전 이상이었던 “평화를 바라거든 정의를 구하라(Si vis pacem cole justitiarn)”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 사회가 정의롭기 때문에 더 희망적이기 보다 희망이 있기에 더 정의로울 수 있음을 마음 깊이 되새겨본다. 🌱

4) De Vogli R, Ferrie JE, Chandola T, Kivimäki M, Marmot MG. Unfairness and health: evidence from the Whitehall II Study.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7;61(6):513-8.